

아산지역 마한·백제 문화재 활용방안 구상을 위한

의 정 토 론 회

- 일 시: 2017. 10. 27.(금) 14:00
- 장 소: 아산시 탕정온샘도서관
- 주 최: 충청남도의회



충청남도의회

의정토론회 진행 안내

토론회 개요

- 일 시: 2017. 10. 27.(금) 14:00~16:20
- 장 소: 아산시 탕정온샘도서관
- 주 최: 충청남도의회
- 주 제: 아산지역 마한·백제 문화재 활용방안 구상

진행 흐름

시 간			내 용	비 고
부터	까지	소요		
＜ 개 회 식 ＞				
14:00	14:05	5'	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정책지원팀장
14:05	14:10	5'	내빈소개, 개회사 등	윤지상 의원
＜ 토 론 회 ＞ ※좌장: 윤지상 의원				
14:10	14:40	30'	주 제 발 표 ▶ 박순발 교수 /충남대학교 ▶ 아산의 고대 문화자원	
14:40	15:30	50'	지 정 토 론 ▶ 이경복 연구실장 /충남역사문화연구원 ▶ 오규진 소장 /가경고고학연구소 ▶ 김경태 책임연구원 /충남연구원 문화관광디자인부 ▶ 지원구 학예연구사 /아산시 문화관광과 ▶ 정재학 학예팀장 /천안박물관	토론자 전체 (각 10분)
15:30	15:50	20'	자 유 토 론	발제자 및 토론자
15:50	16:15	25'	청중 토론(질의 답변)	참여자 전체
16:15	16:20	5'	정 리 및 폐 회	좌 장

목 차

■ 주제발표

- ☞ 아산의 고대 문화자원 3
박순발 교수(충남대학교)

■ 지정토론

- ☞ 아산지역 문화유산 활용을 위한 연구방향 17
이경복 연구실장(충남역사문화연구원)
- ☞ 「아산의 고대 문화자원」 토론문 19
오규진 소장(가경고고학연구소)
- ☞ 아산의 문화유적 활용과 사례 23
김경태 책임연구원(충남연구원 문화관광디자인부)
- ☞ 아산의 마한·백제 문화정책의 방향성 31
지원구 학예연구사(아산시 문화관광과)
- ☞ 박물관 설립에 관한 제언(천안흥타령관 사례 중심으로) 35
정재학 학예팀장(천안박물관)

주제 발표

아산의 고대 문화자원

박 순 발 교수

(충남대학교)

아산의 고대 문화자원

박 순 발 교수
(충남대학교)

I. 아산의 문화유산

아산이 고고학적으로 주목받게 된 주요한 계기는 1976년 아산 신창면 남성리(南城里)에서 청동기시대 유력자 무덤의 발견이다. 당시로서는 대단한 국보급의 청동기가 석곽묘에서 일괄 출토되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아산이라는 지역 이미지는 적어도 한국사를 체계적으로 학습한 이에게는 한반도 청동기시대 대표적인 유적 가운데 하나인 남성리와 밀접하게 되었다.



충남지역에서 현재까지 알려진 이 시기 분묘 유적의 수는 약 30개 가량 되지만, 그 규모와 부장품의 질과 양으로 보면 남성리와 비교될 만한 것은 대전 괴정동·아산 남성리·당진 소소리·예산 동서리·부여 연화리·부여 합송리 등에 불과하다. 이들은 모두 그 이후 마한(馬韓)의 중심지 가운데 하나로 성장하였음은 물론이다.

충남지역 원삼국시대 유적은 약 60여개소가 알려져 있다. 유적의 성격별로 보면 취락유적, 분묘군, 생산유적 그리고 성격이 불명확하나 입지로 볼 때 유통과 관련이 많은 유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2 참조) 그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이 분묘군인데, 분묘군의 분포는 대략 지금의 읍·면·군 소재지와 같은 전통적인 인구 밀집지역과 대체로 일치하는 정형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분묘유적과 멀리 않은 곳에 당시의 취락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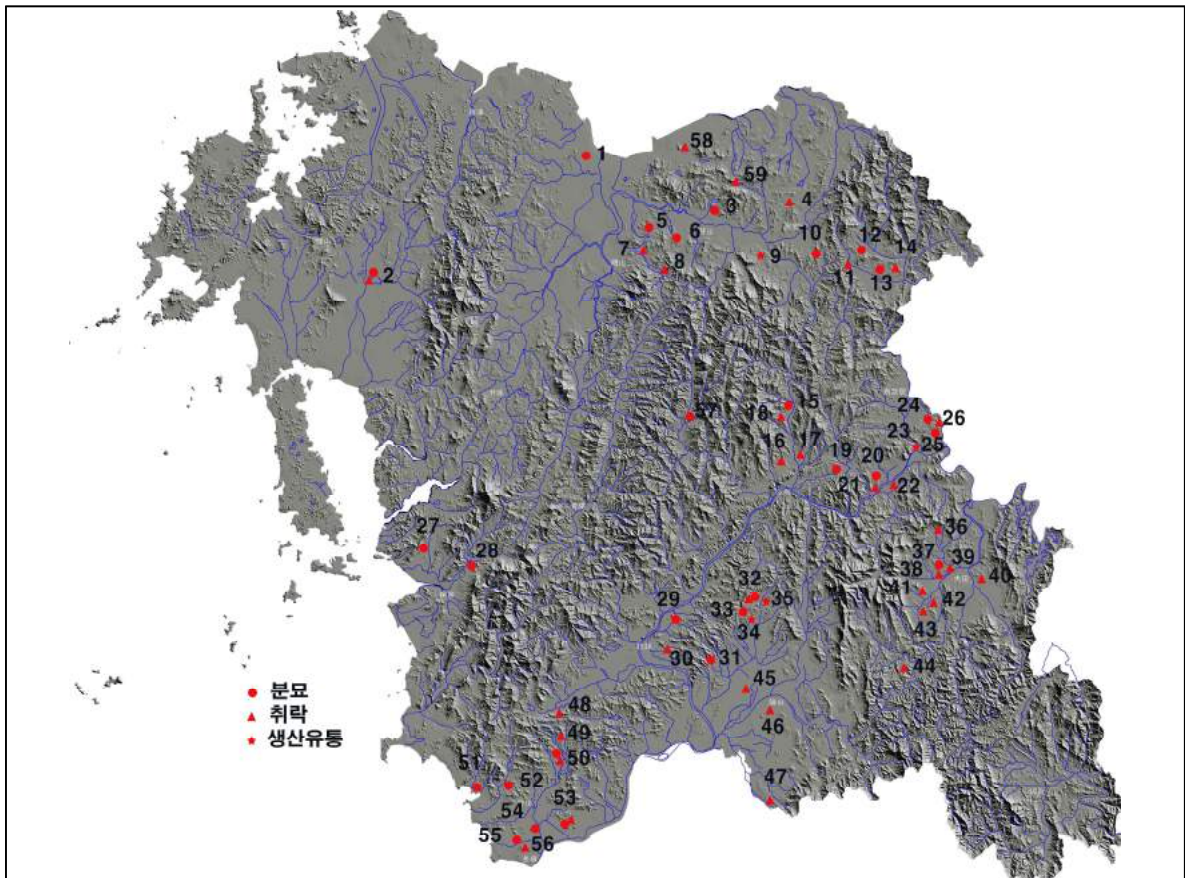


그림 2. 충남지역 원삼국시대 유적 분포

1당진 도성리, 2서산 기지리, 3아산 명암리·용화리, 4천안 두정동, 5아산 와우리, 6아산 신법리, 7아산 갈산리, 8아산 구성리, 9아산 갈매리, 10천안 청당동, 11천안 용원리, 12천안 운전리, 13천안 신평리, 14천안 장산리, 15공주 장원리, 16공주 귀산리, 17공주 수촌리, 18공주 전평리, 19공주 하봉리, 20연기 송당리, 21연기 나성리, 22연기 대평리, 23연기 월산리, 24연기 용호리, 25연기 응암리, 26연기 응암리, 27보령 관창리, 28보령 창암리, 29공주 분강·저석리, 30부여 가탑리, 31부여 증산리, 32공주 안영리, 33공주 화정리, 34공주 남산리, 35공주 장선리, 36대전 자운동, 37대전 궁동, 38대전 노운동, 39대전 구성동, 40대전 신대동, 41대전 장대동, 42대전 용계동, 43대전 대정동, 44계룡 입암리, 45논산 정지리, 46논산 내동, 47논산 마전리, 48부여 논치리, 49서천 지산리, 50서천 봉선리, 51서천 당정리, 52서천 오석리, 53서천 추동리, 54서천 도삼리, 55서천 옥남리, 56서천 송내리, 57공주 여드니, 58아산 백포리, 59아산 송촌리

그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것이 아산 탕정면 명암리 일대의 분묘군이다. 가히 마한 최대 분묘군이라 할 만하다. 아산 탕정면 소재지 북편의 표고 30m 내외의 구릉 사면 및 곡간부에 걸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는데, 행정구역상으로는 탕정면 갈산리·명암리·용두리로 구분되지만 모두 동일한 분묘군으로 판단된다. 2006년도에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이 조사한 갈산리 지점에서 21기, 2007년 5월에 역시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이 조사한 갈산리·명암리 지점에서 52기, 같은 해 11월에 충남역사문화원이 조사한 66기, 2008년 7월에 충청문화재연구원이 조사한 용두리·명암리 지점의 24기, 마지막으로 2008년 12월에 역시 충청문화재연구원이 조사한 용두리 지점에서 50여기 등 모두 190여기가 확인 조사되었고 2017년도까지 조사된 분묘 총수는 270여기에 달한다. 인접한 청당동 유적이나 공주 하봉리·장원리 등에서는 10~20기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규모가 초월적임을 알 수 있다.

이 유적은 인접한 삼성전자 단지의 직원용 숙소와 학교 등 지원시설 건설 부지에 포함되어 조사된 것으로, 원삼국시대 유적이외에도 청동기시대 전기의 대규모 취락 유적인 명암리 유적과도 부분적으로 중복되고 있다.



그림 3. 아산 탕정면 일대 분묘군 및 출토유물

지점에 따라 분묘 조성 시기상의 약간의 차이도 존재하는데, 용두리 지점이 가장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부장 철기 가운데 그간 영남지역에서 성행하던 철모(鐵鉏) 등이 존재하는 점이 주목된다. 긴 모신 아래쪽에 자루를 끼우는 공부(鋤部)가 달린 것으로, 공부에 비해 모신이 2배 이상 길고 모신과 공부 경계지점이 밖으로 돌출한 모양이 특징적이다. 철기 뿐 아니라 양남지역 원삼국 후기(2세기 후반~3세기 말)의 특징적인 토기인 둥근 밑의 옹이나 굽다리가 달리고 목이 곧은 항아리인 대부직구호 등도 함께 나와 영남지역과의 폭 넓은 교류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 닮은 유물은 영남지역에서 대략 250년을 전후한 3세기 전반~후반 무렵에 해당되므로 용두리의 목곽묘의 시기를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연대는 인접한 갈산리 주구토광묘보다 약간 이른 편이다. 결국 동일한 무덤 축조 집단이 처음 용두리 지역에 무덤을 만들다가 시간이 경과하면서 약 500m 가량 동쪽에 위치한 갈산리 지역으로 묘역을 옮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무튼, 용두리 유적으로 인해 그간 문헌기록뿐이었던 변진 철의 마한지역으로의 공급 사실을 고고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그간, 철모를 비롯한 영남지역 특유의 철기는 연기군 동면의 응암리 유적이나 아산시 신법리 등에서 알려진 바 있었으나 영남지역 것과 닮은 토기와 함께 나온 것은 이 유적이 처음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것으로만 보면 아산 용두리 유적을 필두로 아산만 인근 지역이 변진지역과의 교류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이해되며, 아울러 마한의 중심이 아산·천안 일대에 위치하였을 가능성을 높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 물자의 교역은 필수 불가결하다. 자원의 분포가 균일하지 않은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회 내의 원활한 재분배의 장으로서도 필요하다. 일정 규모 이상의 교역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생산물의 잉여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축적된 잉여가 단위 취락의 범위를 넘어서 다수의 취락이 위계적으로 통합된 사회 내에서 관리되기 시작한 것은 앞 절에서 본 청동기시대 후기의 송국리유형 단계로 이해된다. 원삼국 시대에 들어와서 그러한 경향은 가속화되었을 것임은 물론인데,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이 아산 갈매리 유적이다.



그림 4. 아산 갈매리유적 출토 토기와 목기

원삼국시대 생산과 교역의 장이라 할 수 있는 아산 갈매리 유적은 아산시 배방면 갈매리 일대에 위치하고 있다. 이 유적은 2004년 아파트 건립부지에 포함된 배방천변 충적지 약 3만여평에 분포되어 있다. 공주대학교박물관,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고려대학교 고고환경연구소 등 3개 조사기관에 의해 합동 조사되어 다수의 유물과 유구가 확인되었다. 확인된 유구는 저장용으로 판단되는 다수의 굴립주건물 혹은 고상창고와 저장공, 철기·목기 등의 제작 및 가공과 관련된 시설, 우물 등으로서 거주용의 수혈 주거지 수는 전체 유적의 규모에 비해 극히 적다. 이러한 양상으로 보아 이 유적은 일반적인 성격의 취락은 아님이 분명한데, 굴립주건물지 등이 반복적으로 사용·폐기된 점으로 보아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반복적으로 점용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유적에서 드러난 그러한 양상은 전통적인 장시(場市)의 모습과 매우 닮았다. 저장 시설이 많은 점이나 철기·목기가 가공 제작되는 시설이 있는 점은 각처에서 모인 산물이 교역되고 반제품이 가공되어 제품으로 유통되는 장소로서의 기능과 잘 부합된다. 이러한 점에서 필자는 이 유적을 원삼국시대의 장시터로 이해하고자 한다. 갈매리 유적의 위치는 분묘군의 존재로 보아 인근에 읍락의 중심 취락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아산 탕정면 일대와 천안 청당동 분묘군으로부터 각각 약 9km 정도 떨어진 중간 지점에 해당되므로 읍락과 읍락 사이의 교역이 이루어졌던 매우 중요한 장시의 하나로 추정할 수 있다.

저장용의 수혈과 굴립주 건물지 등으로 구성된 유적은 이외에도 연기 월산리 유적이 있는데, 이 역시 갈매리와 동일한 성격의 유적으로 이해된다. 월산리는 금강을 건너는 전통적인 도진(渡津)에 해당되어 서로 다른 권역 사이의 물자 교류가 이루어

지기 좋은 장소이다. 그 밖에도 저장공이 다수 모여 있는 공주 안영리 유적, 일부 연구자에 의해 ‘토실(土室)’로 불리는 공주 장선리 유적 등도 이와 유사한 유형의 유적으로 이해된다.

II. 마한의 중심지 아산권

『삼국사기(三國史記)』 백제본기 온조왕 25~27년조에는 백제가 마한(馬韓)을 병탄(併呑)하는 내용이 있다.

당시 도성인 ‘한성(漢城)’의 한 민가에서 말이 머리가 하나이고 몸이 둘인 소를 낳은 희한한 일이 있었는데, 일자(日者)가 말하길 백제가 마한을 병합할 조짐이라 하여 왕이 기뻐하였다. 이듬해 7월에 왕이 말하길 마한이 점차 약해지고 위 아래의 마음이 멀어지니 망할 조짐이다. 만약 백제 아닌 다른 나라가 마한을 먼저 삼키면 백제로서는 순망치한(唇亡齒寒)의 형국이 되므로 불가불 먼저 마한을 병탄하는 것이 옳다. 그해 겨울 마침내 전렵을 핑계로 마한을 습격하고 국읍(國邑)을 아울렀으나 원산(圓山)·금현(錦峴) 두성이 끝까지 항복치 않고 버티었다. 이듬해 이들이 항복하자 그 백성을 한산(漢山)의 북으로 옮겼다. 이로써 마한은 멸망하였음에 가을 7월에 대두산성(大豆山城)을 쌓았다.

같은 책 온조왕 36년에는 ‘가을 7월에는 탕정성(湯井城)을 쌓아 대두성(大豆城)의 민호(民戶)를 옮겨 살게 하였다’고 하였다. 여기에 나오는 탕정성은 지금의 아산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마한을 멸망시키고 쌓은 성이 대두산성인데, 그 위치는 아마도 마한의 국읍, 즉 중심지와 가까운 것으로 봐야한다. 그리고 지금의 아산에 새로운 성을 쌓고 그곳에 대두산성의 주민을 옮겨 와 살게 하였다. 이러한 내용으로 미루어 마한의 중심지는 아산과 가까운 곳에 있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 문제를 좀더 분명히 하기 위해 여기서 잠시 마한의 변천에 대한 학계의 여러 견해들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삼국지(三國志)』 위서(魏書)동이전 진한조(辰韓條)에는 진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진한은 마한의 동쪽에 있다. 진한 기로(耆老)의 전언에 의하면 그들은 옛 진역(秦役)을 피해 **한국(韓國)**에 왔는데, **마한(馬韓)**이 그 동쪽 경계를 떼어 주었다”는 것이다. 한편, 같은 책 한조(韓條)에는 “위만에 의해 왕위를 빼앗긴 고조선 준(準)왕이 좌우 궁인을 데리고 해로로 **한지(韓地)**에 와서 스스로 한왕(韓王)을 칭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들 두 기사를 종합해 보면 “한국”이 곧 “마한”을 의미하고 이들의 땅을 “한지”라고 하였음을 잘 알 수 있다.

따라서, 진한조의 “한국”은 한조의 “한지”와 대응되는 것임은 분명하다. 여기의 ‘국(國)’은 국가(國家) 단계의 정치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종족이 거주하는 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대체로 동한(東漢代)까지 제후의 식읍(食邑)이 된 현(縣) 정도의 지역사회를 국(國)으로 부르기도 한 점¹⁾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민족의 경우 부락(部落)의 의미로 ‘국’을 붙이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당시의 용례로 보면 ‘한국’은 대략 현(縣) 정도의 규모가 되는 ‘한(韓)’ 부락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들은 나름의 경계, 즉 영역(領域)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영역의 일부를 신래(新來) 유이민들에게 할양하는 정도의 정치적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 그러한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를 ‘마한’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그 무렵이 진역이 일어났던 기원전 3세기 말이므로 적어도 그 이전에 ‘한지’에는 ‘한국’=‘마한’이 성립되어 있었다.

그 이후 기원전 198년으로 비정되는 시기에 고조선 준왕의 남분하여 ‘한지’에 내려와 자력으로 ‘한왕’에 오른 것이다. 당시 ‘한국’ 혹은 ‘마한’이 존속하고 있었으나 준왕은 실력으로 이들을 누르고 정치체를 결성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준왕이 ‘한왕’으로 자호(自號)한 정치체의 명칭은 현전하는 문헌사료 상으로는 확실치 않다. 이와 관련해 고려 및 조선 전기의 선유들은 준왕이 칭왕한 정치체를 마한과 같은 것으로 보았으나, 정약용은 준왕이 ‘한지’에 와서 습취(襲取)하고 세운 곳은 금마군(金馬郡)인데, 그 이전부터 이미 그곳에는 마한이라는 나라가 있었으며, 중국 사서에 나오는 목지국(目支國)이 그것이라 하였다(丁若鏞, 1811). 이들이 모두 ‘한지’에 세워진 정치체임은 같으나 준왕이 세운 새로운 정치체에 의해 종래 ‘마한’과 동일시되던 정치체였던 ‘한국’은 그 정치적 위력이 축소되었음을 생각하면, ‘한국’으로부터 준왕 정치체로의 권력 이동이 있었던 것은 인정될 수 있겠다.

한편, 정확한 성립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준왕 남래 정치체 성립 이후 어느 무렵에 위만조선과 병행하여 진국(辰國)이 존재하였다. 진국에 대한 가장 이른 문헌사료는 『한서(漢書)』 조선전(朝鮮傳)의 보이는 “진번(眞番)과 진국(辰國)이 (漢)천자에게 상서(上書)하여 알현코자 하였으나 (위만조선에 의해) 막혀 통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이다²⁾. 그 이후 『삼국지(三國志)』 위서(魏書) 동이전 한전에 인용된 『위략(魏略)』에는 “(위만조선의 마지막 왕인) 우거(右渠)가 아직 패망하기 전 조선상(朝鮮相) 역계경(歷谿卿)이 우거에 간(諫)하였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동쪽으로 진국(辰國)에 갔는데, 이때

1) 『後漢書』 志二十八 百官五：列侯，所食縣爲侯國.

2) 『漢書』 朝鮮傳：眞番·辰國欲上書見天子，又雍闕不通. 이와 대응되는 기사로서, 『史記』 朝鮮傳에는 “眞番傍衆國，欲上書見天子，又擁闕不通”이 있다.

이천여호의 위만조선 주민들이 함께 떠났다. 역시 조선과는 서로 왕래하지 않았다”는 기사³⁾가 있다.

이로써, 기원전 2세기 초~2세기 말 이전에 한반도 중남부지역에는 서북지역의 위만조선과 더불어 준왕이 ‘한지’에 세운 정치체와 그 이전 ‘한지’의 유력 정치체였던 ‘한국’ 이외에도 진국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의 성립 순서는 ‘한국’=마한→준왕 정치체→진국 순이었다. 준왕 정치체 성립 이후 ‘한국’=마한의 정치적 위상은 현전하는 문헌기록 상으로는 소상하지 않으나, 『삼국지(三國志)』 위서(魏書) 동이전 변진전(弁辰傳)에 “변·진한 24국..(중략)..그 가운데 12국은 진왕(辰王)에 속한다. 진왕은 항상 마한인으로 세워 세세(世世)로 이어진다. 진왕은 스스로 왕이 되지 못한다”는 기사와 함께 ‘자립하여 왕이 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위략(魏略)』을 인용하여 “그들(즉 변·진한)은 유이민이므로 마한의 통제를 받는다”고 하였다⁴⁾. 이 기사는 3세기 후반경의 삼한사회의 사정을 전하는 것이므로 진국 성립 당시의 모습이라 보기는 어렵지만, 후세의 ‘진왕(辰王)’이 본래 진국(辰國)의 왕이었음을 추정하기는 어렵지 않다. 다시 말하면, 진국에는 진왕이 있었고, 그 지위는 마한인이 세세 상속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로써 미루어 보면, 준왕 정치체 성립 후 밀려난 ‘한국’=마한은 그 이전부터 진역을 피해 동계(東界)에 정착하던 집단과 연계하여 진국(辰國)이라는 새로운 정치체를 만들었던 사정을 전하는 것은 아닐까 한다.

그 뒤의 사정을 전하는 『후한서』 동이전 한전의 “준(準)은 뒤에 절멸(絶滅)하였는데, 마한인이 다시 스스로 자립하여 진왕이 되었다”고 한 데서⁵⁾ 그러한 추정이 가능하다. 즉, 준왕 정치체가 소멸한 뒤에 진국의 주요 구성을 이루었던 ‘한국’=마한의 집단이 진국을 주도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역시 『후한서』 동이전 한전의 “마한의 가장 큰데, 모두 마한 종족을 세워 진왕으로 삼았다. 진왕의 도읍지는 목지국(目支國)으로 삼한(三韓) 전체의 왕이다”라는 기사⁶⁾를 통해 뒷받침 된다.

준의 정치체가 소멸된 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문헌기록이 없으나, 진국에 소속되었던 비 ‘한국’=마한계 세력, 즉 진역을 피해 온 이들이 ‘진한(辰韓)’을 표방한 시점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楊軍2001). 『삼국지』위서 동이전 한전에 인

3) 『三國志』魏書 東夷傳 韓傳：魏略曰，右渠未破時，朝鮮相歷谿卿以諫右渠不用，東之辰國，時民隨出居者二千餘戶，亦與朝鮮貢蕃不相往來。

4) 『三國志』東夷傳 弁辰傳：弁辰韓合二十四國，大國四五千家，小國六七百家，總四五萬戶。其十二國屬辰王。辰王常用馬韓人作之，世世相繼。辰王不得自立爲王。魏略曰：明其爲流移之人，故爲馬韓所制。

5) 『後漢書』東夷傳 韓：準後滅絕，馬韓人復自立爲辰王。

6) 『後漢書』東夷傳 韓：韓有三種，一曰馬韓，二曰辰韓，三曰弁辰...(중략)..皆古之辰國也。馬韓最大，共立其種爲辰王，都目支國，盡王三韓之地。

용된『위략』에 “왕망(王莽) 지황(地皇) 연간(20~23년)에 진한(辰韓)의 우거수(右巨帥)가 된 염사착(廉斯鎡)이 낙랑에 복속하러 간” 사실을 전하는 기사에 처음으로 ‘진한’이 등장하고 있다. 이전 시기 진국에 소속되어 있었던 세력이 ‘진한’이라는 정치체의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시기는 지황 연간이다. 이로써 보면 적어도 지황 연간에는 이미 전술한 바와 같은 준왕 정치체의 멸절 및 그 후속 상황으로서 진국의 진왕은 ‘한국’=마한의 주도세력으로 부상한 목지국에 소재하였던 것을 짐작할 수 있으므로 준왕의 정치체는 그 이전에 이미 종언을 고하였던 것이 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기원전 3세기 말 이전에 한반도 중남부지역은 ‘한지(韓地)’로 불리고 있었고, 그 곳에는 ‘한국(韓國)’ 혹은 ‘마한’으로 불리는 정치체가 성립되어 있었다.
 - ② 기원전 198년에 위만에 의해 나라를 뺏긴 고조선 준왕이 남분하여 ‘한국’=마한을 습취하여 정치체를 세우고 ‘한왕(韓王)’이 된 정치체는 ‘기준국(箕準國)’이다.
 - ③ 정치적 주도권을 상실한 ‘한국’=마한의 세력 가운데 일부는 진역(秦役)을 피해 내려와 ‘한국’=마한 영역의 동쪽에 정착한 집단을 아울러 ‘진국(辰國)’을 세웠다. 진국의 왕인 ‘진왕(辰王)’은 구(舊) ‘한국’=마한 사람들이 세세(世世)로 상승(相承)하였다.
 - ④ ‘기준국’ 멸절 이후 옛 ‘한국’=마한에 속하였던 세력 들이 그 정치적 위상을 이어 진왕(辰王)을 세우고 그 치소(治所)를 목지국(目支國)에 두었다.
-
- ① 단계의 ‘한국’ 혹은 ‘마한’의 중심지는 고고학자료를 통해 비정되어야 할 것인데, 현재까지 드러난 것으로만 보면 충남 아산을 중심으로 하는 일련의 청동기 부장 분묘 분포지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 ② 단계의 ‘기준국’의 소재지는 전북 익산을 중심으로 하는 전주·익산권이 유력하다.
 - ④ 단계의 목지국은 고고학적으로 원삼국시대에 해당되는데, 지금까지 드러난 고고학자료와 앞서 본 『삼국사기』 백제본기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아산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 가장 유력하다.

III. 맺음말

아산(牙山)의 옛 이름은 ‘아술(牙述)’인데, 이를 이두로 읽으면 ‘잇봉’이 된다. 대전의 옛 지명 ‘우술(雨述)’을 경덕왕대에 들어 한자화하면서 ‘비풍(比豐)’으로 개명한 것 역시 ‘우술’을 ‘빗봉’이라 읽었던 것과 동일한 예이다. 지금도 아산에는 ‘음봉’이라는 지명이 남아 있는데, 이는 ‘아술’의 이두음인 ‘잇봉’이 와전된 사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처럼 지상에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지명이 오랜 세월을 견디고 남아 있다. 한 지역의 역사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이 곧 지명인데, 지명의 전승은 이처럼 뿌리 깊은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그에 반해 지하에는 흔히 문화재로 부르는 과거 사람들의 삶의 흔적이 남아 전해지고 있다. 여러 이유로 지하의 삶의 흔적 가운데 일부가 지금 우리의 눈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가시적이라는 측면에서 지명으로 남아 있는 보이지 않는 지역의 역사를 더욱 생생하게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귀중한 지역 문화자산이다.

산업화와 정보화로 대표되는 지역발전 및 경제성장은 분명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 새로운 모멘텀을 필요로 할 것이다. 흔히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성장을 상정하면서 다각도로 그 계기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각급 지자체의 현안일지도 모른다. 이때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지역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이다. 흔히 지역 이미지라는 것인데, 대체로 파급력이 강하고 지속적인 지역 이미지는 해당 지역의 역사문화적 역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아산하면 국민 다수가 긍정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역사 이미지로서 마한의 ‘목지국(目支國)’은 매우 중요한 지역 역사문화 자산이라 할 수 있다.

앞서 보았듯 이제 아산과 목지국의 관련성을 제기하여도 좋을 정도로 청동기시대 이래 아산의 문화유산 자원은 풍부하다. 이들을 잘 활용하여 지역의 긍정적인 이미지화 전략에 활용하는 일이 필요한 시점이다. 여러 방안 가운데 가장 파급효과가 큰 것이 목지국관련 박물관을 설립하는 것이라 여긴다. 아산권에서 출토된 문화유산 가운데 한국사 기술(記述) 상에서 빠지지 않는 중요성을 가지는 것이 적지 않은데, 이들을 한자리에 모아 전시·교육·연구하는 역사문화 거점으로서 ‘목지국박물관’이 기대된다.

지정토론

☞ 아산지역 문화유산 활용을 위한 연구방향

이경복 연구실장(충남역사문화연구원)

☞ 「아산의 고대 문화자원」 토론문

오규진 소장(가경고고학연구소)

☞ 아산의 문화유적 활용과 사례

김경태 책임연구원(충남연구원 문화관광디자인부)

☞ 아산의 마한·백제 문화정책의 방향성

지원구 학예연구사(아산시 문화관광과)

☞ 박물관 설립에 관한 제언(천안흥타령관 사례 중심으로)

정재학 학예팀장(천안박물관)

아산지역 문화유산 활용을 위한 연구방향

이 경 복 연구실장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이번 좋은 발표에 토론을 맡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제가 토론을 맡게 된 것은 저희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이 탕정면 박지프레유적을 발굴하게 되어서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아산시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고 있는 연구자는 아니지만, 그동안 제가 연구원에 몸담고 있는 한 지역학연구자로서 아산시 연구동향 중 부족한 분야에 대한 제 소견 하나만 말씀드리면서 토론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아산시는 온천과 아산이충무공유허(牙山李忠武公遺墟 : 사적 제155호)를 중심으로 조성된 현충사 등 관광자원이 풍부한 고장이다. 이는 국가지정문화재(국보 1, 보물 4, 사적3, 중요민속자료 6), 도지정문화재((유·무형문화재 4, 기념물 7, 민속자료 3), 문화재자료 25점으로 지정문화재 수량의 단면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또한 아산시는 세종대왕과 관련된 황희 정승과 함께 활동했던 맹사성의 아산 맹씨 행단과 용화동에는 세종대왕이 안질을 치료했던 우물이라 해서 어의정 또는 어정어천이라 하는 우물이 있다.⁷⁾ 그리고 국민 누구나 알고 있는 충무공 이순신의 이충무공 난중일기부서간첩임진장초(李忠武公亂中日記附書簡帖壬辰狀草 : 국보 제76호)와 이충무공유물(보물 제326호) 등이 현충사에 보관되어 있고, 1951년에 건립된 이충무공사적비(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230호)가 있다. 또한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아산 외암마을도 있다.

이와 같이 아산시는 한반도의 중부내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지리적 위치로 선사시대 이래 일찍부터 전통있는 역사문화를 형성하여 왔던 지역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풍부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정통의 고장이지만, 지역학 연구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순천향대학교 아산학연구소에서 매년 많은 연구성과를 내고 있다.

7) 이 우물은 공주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굴·조사해 1992년 7월에 복원했으며, 현재 약수터와 시민들의 휴식처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문헌적 연구에 치중한 점이 아쉽다. 아산시는 충남에서 천안시와 더불어 국토개발사업과 공업단지 조성 등으로 역사적으로 가치있는 매장문화재가 많이 발굴되었다. 그 많은 중요한 매장문화재 발굴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전체적인 정리와 연구성과가 부족하다.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것은 탕정면에서 확인된 수많은 마한 시대의 유적들이 있지만, 학술적 연구뿐만 아니라 아산시민들도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그와 함께 백제시대 역사유적에 대한 조사와 정리도 병행했으면 한다. 아산시는 대중국 교류의 창구인 아산만을 끼고 있어 백제시대 유적이 잔존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실제로 확인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정리와 연구도 부족하다. 하나의 사례로 백제시대 중요한 거점인 탕정성에 대한 비정에 대한 조사가 그것이다. 삼국사기에 ‘탕정성’이란 기록과 현재 지명이 ‘탕정성’이라고 명명되는 읍내리 성곽이 있으나, 이에 대한 비정문제는 논란이 있다. 백제시대 ‘탕정성’을 아산시 읍내리에 있는 ‘탕정성’으로 비정하기도 하지만, 배방산성으로 비정하기도 한다. 이러한 논란은 한 번에 해결될 수 없지만, 지금까지 발굴된 백제유적을 정리하고, 탕정성과 배방산성을 학술조사 하므로써 그 논란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점에서 연구원에 몸담고 있는 연구자로서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 아산시는 충남에서 천안시와 함께 서북부권의 중심도시로 천안박물관과 같은 시립박물관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아산시는 최근 개발과 함께 사라지는 매장문화재에 대한 연구 성과와 그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에 따라 아산시의 역사 연구에서 부족한 매장문화재에 대한 연구활동이 풍부해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아산시는 아산만과 지명상으로도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물론 아산지역 향토사연구자들이 “아산시 지역의 나루와 포구”에 대한 간략한 연구도 진행하였지만, 아산만의 전체적인 나루와 포구에 대한 전수 조사가 실시된 적은 없다. 아산만은 대중국 교류의 중심이었음을 감안하더라도 아산만에 대한 정체성 연구를 아산시에서 주도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서해안의 주역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산의 고대 문화자원」 토론문

오 규 진 소장
(가경고고학연구소)

1. “가장 규모가 큰 것이 아산 탕정면 명암리 일대의 분묘군이다. 가히 마한 최대 분묘군이라 할 만하다.”

그동안 아산 탕정지역을 필두로 그 인근지역에서 조사·확인된 원삼국시대 및 그 이전 시기의 고고유적의 수는 가히 폭발적이라 할 정도로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탕정면 갈산리, 명암리, 용두리 일대에서 조사된 분묘군은 수량면에서 여타지역과 구분되는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한 최근 조사된 아산 배방면 월천리 일대에서 100여기를 상회하는 원삼국시대 대규모 토광묘가 확인된 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본 토론자는 그동안 조사되었던 아산 탕정 일대 분묘군의 시간적 스펙트럼과 공간적 분포의 함의에 대해 발표자의 고견을 듣고 싶다.

[참고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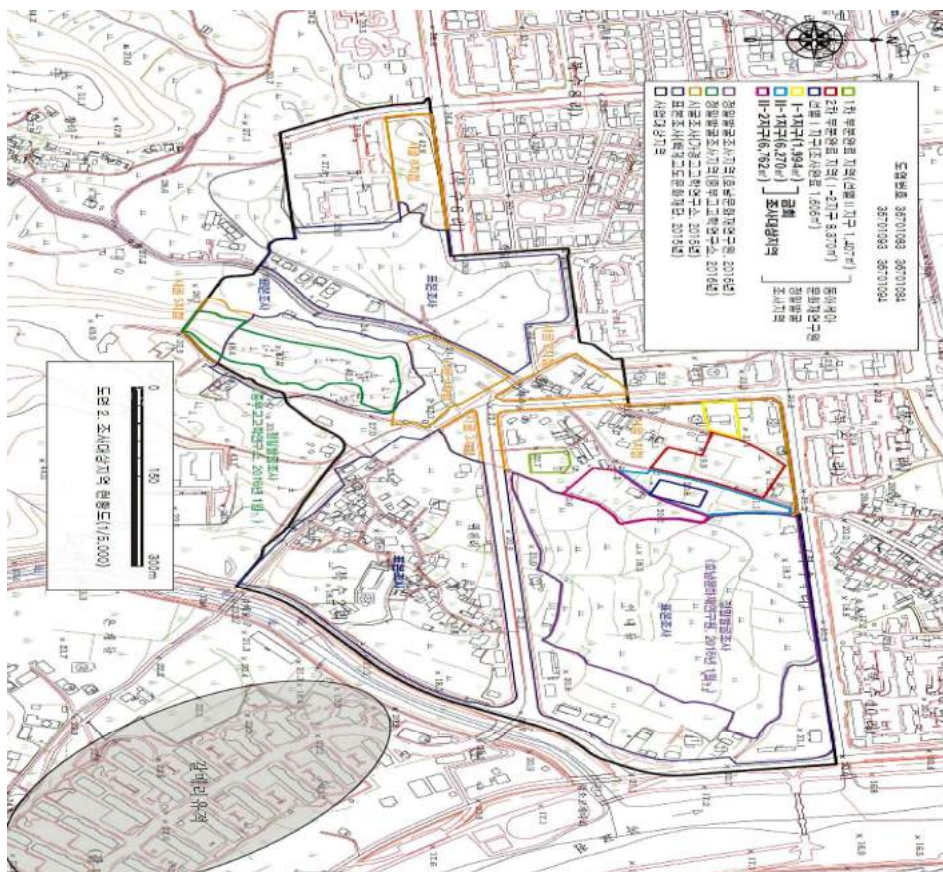
아산 배방면 월천리 분묘군(중부고고학연구소)

2. “(아산 갈매리)유적에서 드러난 그러한 양상은 전통적인 장시(場市)의 모습과 매우 닮았다. 저장시설이 많은 점이나 철기·목기가 가공 제작되는 시설이 있는 점은 각처에서 모인 산물이 교역되고 반제품이 가공되어 제품으로 유통되는 장소로서의 기능과 잘 부합된다. 이러한 점에서 필자는 이 유적을 원삼국시대의 장시터로 이해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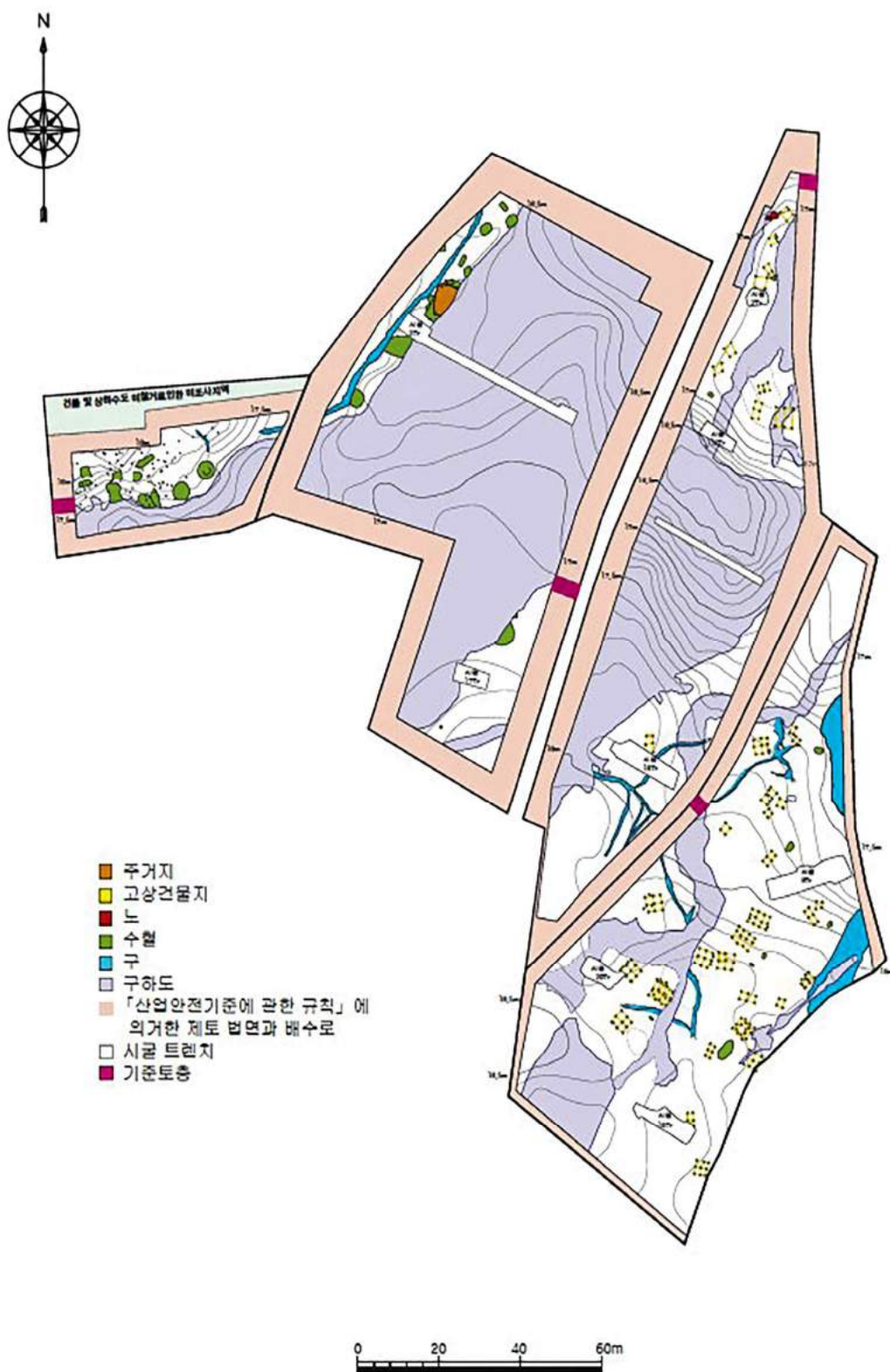
아산 갈매리유적의 특징은 거주용 주거지의 수가 극히 적다는 점과 나무 기둥으로 축조된 고상창고 및 저장 시설, 철기 및 목기가 다수 확인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발표자가 일반적인 정주형 취락 보다는 물류의 유통과 관련된 유적으로 언급한 것은 타견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 성립 이전 단계의 고대 정치체에서 물류의 유통은 중요한 정치적 기반이자 정치체를 유지하는 근간이기도하다. 따라서 물류의 유통지역은 지정학적으로 고대 정치체영역 내에서 중심지의 역할을 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발표자는 탕정면 일대에 분포하고 있는 다량의 분묘군과 더불어 물류의 유통과 관련된 갈매리유적을 제시하면서 이를 근거로 이 지역이 마한의 중심지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토론자는 발표자의 이러한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다.

이에 덧붙여 갈매리유적에 대한 보완적 의미에서 최근 조사된 아산 배방면 월천지구 내 대규모 유적의 존재의의와 마한단계 물류·유통의 지정학적, 정치적 함의에 대해 발표자의 고견을 듣고 싶다.



아산 배방면 월천리유적 및 갈매리유적 위치도



아산 배방면 월천리유적(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조사 지역)

아산의 문화유적 활용과 사례

김 경 태 책임연구원

(충남연구원 문화관광디자인부)

1. 역사자원과 활용의 개념

1) 역사자원의 개념

역사자원의 개념에 대해서는 통일된 의견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역사자원 또는 역사문화자원 등의 개념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역사자원을 설명하기 위하여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역사자원(또는 역사문화자원)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이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7)에서는 역사문화자원을 문화재, 성곽 및 옛 도시경관, 근대문화유산, 박물관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남치호(2007)는 유형문화자원을 역사문화자원, 문화시설자원, 인공 경관자원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세계문화유산, 국보, 보물, 중요문화재, 지방문화재 등의 유형문화재, 의식주 또는 신앙 등과 관련된 유형민속자료, 고분, 패총, 성지(城地), 궁 지(宮地) 등 유형 기념물을 역사문화자원으로 분류하였다.

민현석(2008)은 국가지정문화재, 시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문화재자료 및 문화재적 가치가 있으나 아직 지정되지 않은 비지정 문화재를 역사문화자원으로 분류하였다. 오재환(2009)은 문화자원을 역사문화자원, 예술문화자원, 생활문화자원, 대중문화자원 등으로 구분하면서, 지정 및 등록문화재, 비지정문화유산, 근대문화유산, 전통사찰, 박물관, 전통문화자원을 역사문화자원으로 분류하였다. 이태종(2009)은 신라문화권을 중심으로 역사문화자원 개발 정책방안을 제안하면서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전통건축물을 역사문화자원으로 분류하였다.

이상의 내용에서 역사자원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역사적가치’, ‘유·무형자원’이라는 단어이다. 이를 바탕으로 할 때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형성되고, 역사적 가치를 지니는 유·무형자원’을 역사자원의 개념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2) 지역 역사문화자원의 활용 개념

지방화·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각 기초단체는 어느 때보다도 경쟁력을 필요로 하는 시대에 도입하였다. 따라서 지역경제 주체는 국내의 타 지역 뿐만 아니라 세계의 여러 지역과 상호경쟁 관계에 놓이게 되었으며, 신기술, 신소재 등 첨단산업이 출현하여 탈공업사회(post-industrial society)로 들어선 세계경제구조의 재편이 시작되었다. 한편 대내적으로는 세계화·지방화 시대를 맞이해 조직의 분권화와 경제적 세계화가 추진되고 있다.

과거에는 지방의 발전이 중앙정부의 산업정책 및 지역정책에 크게 의존하였기 때문에 지방의 독자적인 산업진흥정책이나 지역발전 전략이 커다란 효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 그러나 도시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을 견인하는 시대에 지역의 문화자원 발굴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업이 되었다.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문화도시 경쟁도 이러한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국가발전을 위한 국책사업의 지역배분과 국토균형발전에 입각한 지방 자치단체의 자성으로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산업부문별 및 업종별 육성정책에 부응하는 산업구조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은 중앙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으면서 급속한 산업발전과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은 산업발전의 침체와 이로 인한 지역발전의 낙후성을 경험해야 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여건에 맞는 정책 개발과 발전방향이 모색되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전략적 경영방식이 도입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의 경쟁력은 주로 지역경제의 발전 정도에 따라 평가될 것이기 때문에 각 지역은 그 지역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지역 고유의 경제발전 모델을 수립하고 발전 대안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 지역 역사문화자원 관광 활용 사례

1) 프랑스 앙부아즈 성(Château d'Amboise)⁸⁾

프랑스에서 가장 긴 루아르 강변에 위치한 루아르 지역에는 왕과 귀족들이 영화를 누렸던 조각을 다듬어 놓은 듯한 르네상스식 고성들이 곳곳에 흩어져있다.

일반적으로 루아르 고성(Châteaux de la Loire)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19개의 고성들이 자리잡고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8) 전약표.임선희(2012) 내용을 참조

앙부아즈는 프랑스 루아르 강 유역의 앵드르에루아르 주(Indre-et-Loire)에 있는 인구 12,000여명의 소도시이다. 앙부아즈 지역의 주민들은 역사·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보존을 위한 보존이 아닌 활용을 통한 보존정책을 선택하였다. 자신들이 물려받은 역사유적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역사·문화유산과 관련되는 인물과 장소를 바탕으로 스토리텔링을 구성하였다.

지난 1976년에 이 지역의 주민들은 앙부아즈 마을의 역사문화유산인 앙부아즈 고성과 이와 관련된 역사적 인물 중 가장 대표적인 프랑수아 1세와 레오나르도 다빈치)등을 연계한 스토리텔링이 만들어졌고 이를 스펙터클화 하였다.

하드웨어적인 고성이라는 건축물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적인 스토리를 입힘으로써 15세기에 지어진 고성(古城)이 감성과 감동을 지닌 문화의 현장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이는 역사문화유산을 감성적인 방법으로 접근함으로써 문화유산에 대한 파급효과를 높이고, 문화유산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앙부아즈 마을은 지역민이 주체가 되어 구성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연간 약 1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연간 약 30만 유로 (약4억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앙부아즈 고성의 야간 스펙터클은 지역적 특성과 특산물을 소개하기 위하여 마을장과 축제를 통해 농산물과 전통케이크 제조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함께 루아르강변의 지역특산물인 투렌(Touraine) 포도주를 공연 중에 관객이 직접 시음하게 하는 참여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스펙터클을 제작하기 위해 마을주민들을 중심으로 앙부아즈 르네상스 공연협회(ARA: Association Animation Renaissance Amboise)가 결성되었고 매년 열리는 행사에는 순수한 민간 자원봉사 차원에서 시작하여 매년 500여 명의 주민이 참여하고 있으며, 오늘날까지 30여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속되어 오고 있다. 앙부아즈 고성 스펙터클은 지난 2000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고, 2004년에는 프랑스 축제 및 역사스펙터클연맹(FFFSH)으로부터 인증서를 받았다.



2) 폴란드 비엘리치카(Wieliczka)의 소금광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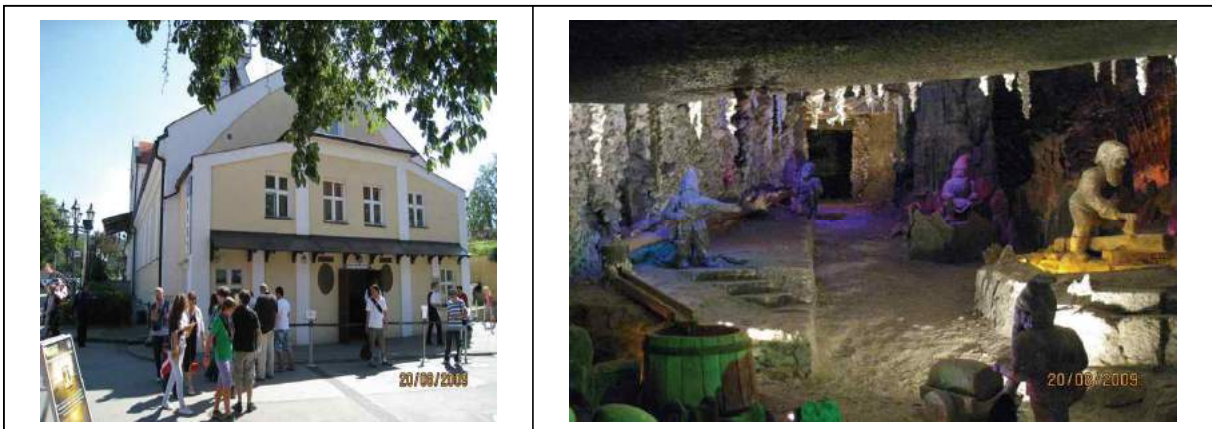
비엘리치카 소금광산은 크라쿠프(Krakow) 동남쪽 10km 지점의 비엘리치카(Wieliczka) 마을에 위치해 있다. 13세기부터 20세기 후반까지 암염을 채굴하던 소금광산으로서, 1978년 세계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광산의 범위는 동서로 5km, 남북으로 1km가량이며, 가장 깊은 곳은 지하 327미터에 달한다. 비엘리치카 소금광산은 14세기부터 국가 귀빈을 대상으로 관광투어를 시작했으며 현재 연간 1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관광 명소이다.

지하 64m에서 지하 135m까지 이어지는 약 2.2km의 갱도를 따라 광부들이 암염을 이용하여 조각한 부조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또한, 과거 암염 채취 광부들의 작업 모습도 재현하여 전시하고 있다.

폴란드 왕실에서 소금의 가치를 인식하게 된 이후 크라쿠프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야기에우워 왕조(Jagiellonowie, 1386~1572) 시기에는 국가 재정의 약 1/3을 소금 무역을 통하여 충당하였다. 약 700년 가량 채굴한 소금의 양은 약 7,500만 톤이었다. 암염 채굴 초기에는 드럼통에 소금을 담아서 운반하였으나, 이후에는 말과 수레를 이용하여 대량으로 운반하였다. 비엘리치카 소금광산은 1996년까지 소금을 채취하였으나 소금 가격의 하락과 홍수로 인하여 소금광산이 침수된 이후 소금 채취는 중단하고 현재는 관광자원으로만 활용하고 있다.

소금광산에는 광부들이 조각한 부조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조각으로는 탄생 5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코페르니쿠스(Kopernik)의 조각상과 이 소금광산에서 찾은 약혼반지를 킹가 공주에게 바치는 모습을 조각한 작품, 그리고 폴란드 출신 최초의 교황인 요한바오르 2세의 조각상 등이다. 소금광산이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장소가 된 것은 열악하고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도 광부들이 종교에 의지하고, 소금을 이용해 아름다운 예술작품과 건축물을 만들어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3) 영국 Flodden 1513 에코뮤지엄

Flodden 1513 에코뮤지엄은 1513년 9월 9일, 객관적인 전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던 제임스 4세가 이끄는 3만 명의 스코틀랜드군이 서리 백작 토머스 하워드(Thomas Howard, Earl of Surrey)가 이끄는 2만 명의 잉글랜드군에게 참패함으로써 스코틀랜드 국왕 제임스 4세가 전사한 플로든전투(Battle of Flodden)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플로든 전투가 영국 국민들의 기억에 자리 잡은 이유는 영국 역사에서 국왕이 전사한 마지막 전투라는 것 이외에, 약 12,000명의 스코틀랜드군과 1,500여명의 잉글랜드군이 전사한 비극의 장소를 배경으로 한 전설과 문학작품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2008년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의 접경지인 Borders of North Northumberland 지역에 거주하는 일단의 주민들은 2013년 500주년을 맞이하는 플로든 전투에서 그 역사적 의미를 찾기 위하여 토론회를 갖기로 하였는데, 지역민들에게 적지 않은 반향을 불러 일으켰고, 이것이 발단이 되어 잉글랜드 최초의 에코뮤지엄인 Flodden 1513 에코뮤지엄의 설립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Flodden 1513 에코뮤지엄은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고고학, 교육, 가계(家系), 서지(書誌), 자원활동 등의 분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Flodden 1513 에코뮤지엄은 역사적인 문화자원과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뿐 아니라 이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자연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

Flodden 1513 에코뮤지엄이 위치하고 있는 Border 지역은 트위드강(River Tweed)이 북대서양으로 흘러 들어가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탐방객들이 걸으면서 강과 바다 등을 감상할 수 있는 산책로, 자전거용 도로, 승마길 등을 조성하였다.

이와 함께 연어의 회귀처로 유명한 트위드강을 연어낚시의 명소로 만들어 이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4) 역사자원 활용 사례의 시사점

위에서 살펴본 역사자원을 관광에 활용한 사례의 시사점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주민의 참여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사람들이 역사자원을 찾는 이유 중의 하나는 역사라는 것이 과거에 발생한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과거의 사건과 이야기가 오늘날 자신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역사자원을 통하여 과거의 역사가 오늘날 자신에게 의미있는 것으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화석화(化石化)된 유물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숨을 쉬는 살아있는 역사자원이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이다. 해당 지역 주민들이 관광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광객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을 때 관광객들은 역사자원을 통하여 시간적인 괴리감을 느끼지 않게 된다.

용인 민속촌보다는 안동의 하회마을과 경주의 양동마을이 역사적인 가치뿐 아니라 관광상품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는 것은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시설이 아니라, 바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그곳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니즈(Needs)를 충족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사례에서 나타난 프랑스의 앙부아즈 고성과 영국의 Flodden 1513 에코뮤지엄이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다.

둘째, 역사자원과 문화콘텐츠의 융합이 필요하다. 역사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유적지로서의 역사자원에 머무르게 할 것이 아니라, 스토리텔링을 중심으로 한 문화콘텐츠와 융합이 필요하다. 역사자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는 다양한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관광객들을 지속적으로 유치하는 곳이 많다. 박준모(2014)는 역사자원과 문화콘텐츠가 융합된 대표적인 사례로 이탈리아의 베로나(Verona)와 캐나다의 프린스 에드워드섬(Prince Edward Island)을 지목하였다.

베로나는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소설을 바탕으로 한 스토리텔링을 관광에 활용하고 있으며, 프린스 에드워드섬은 일본의 애니메이션 감독인 다카하타 이사오(高畑勲)가 제작한 총 50부작 애니메이션 시리즈 ‘빨강머리 앤’이라는 문화콘텐츠를 융합하여 세계적인 관광지로 유명해지게 되었다. 프랑스의 앙부아즈 고성과 영국의 Flodden 1513 에코뮤지엄은 전쟁이라는 소재를 기반으로 한 공연과 스토리텔링을 활용하였으며, 비엘리치카 소금광산은 암염조각(巖鹽 彫刻)과 더불어 킹가 공주에 대한 설화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관광산업에 활용하고 있다.

셋째, 역사자원을 과거에 매어두지 말고 현재로 끌고 나와야 한다. 과거의 시점에 머물러 있는 역사자원은 관광객들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이끌어내기 어렵다. 역사자원이 과거의 사실을 설명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통하여 현재를 바라볼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

프랑스 앙부아즈 고성은 스펙타클 공연 내용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수정하여 공연 내용을 다양하게 발전시키고 있다. 비엘리치카 소금광산은 과거 소금을 생산하였던 갱도의 일부를 견학 및 체험장으로 활용하며 관광객들에게 생동감있는 경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소금광산에 만들어진 성당에서 정기적으로 미사를 드림으로써 소금광산이 현재에도 살아있는 현장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Flodden 1513 에코뮤지엄도 고고학적 발굴과 보존뿐 아니라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플로든 전투의 역사적인 의미를 재발견하고, 이를 현재에 투영함으로써 살아있는 역사를 만들고 있다.

■ ■ 참고문헌

1. 박준모. 2014. 「스토리텔링의 어촌관광 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 『해양정책연구』, 제29권 제1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pp. 23-50.
2. 오일환·신용철. 2014. 「독일 역사경관의 문화유산 관광자원 콘텐츠에 관한 연구」. 『한국사진지리학회지』, 제24권 제3호, 한국사진지리학회, pp. 17-28.
3. 윤유식·오정학·김경태. 2010. 「백제역사재현단지의 관광이미지와 기대가치의 구조관계 분석을 통한 브랜드 전략 연구」. 『관광연구』, 제25권제1호, 대한관광경영학회, pp. 303-326.
4. 전약표·임선희. 2011. 「스토리텔링을 통한 문화유산관광 활성화 방안-프랑스 앙부아즈 고성의 야간 스펙터클 사례를 중심으로」. 『관광연구』, 제26권제5호, 대한관광경영학회, pp. 455-471.
5. 주 폴란드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http://pol.mofa.go.kr/korean/eu/pol/main/index.jsp>)
6. Flodden 1513 에코뮤지엄 홈페이지(<http://www.flodden1513.com>)

아산지역 마한·백제 문화정책의 방향성

지 원 구 학예연구사
(아산시 문화관광과)

아산지역은 1976년 남성리 석관묘 유적이 수습조사되면서부터 고고학적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도시가 확장되면서 주변지역에 대한 대규모의 수습조사가 이루어지면서 더욱 더 많은 고고학적 자료가 검출되게 됩니다. 특히나 곡교천 유역을 중심으로 하여 마한(원삼국)시대와 관련된 유적과 유물의 밀집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학계에서는 아산지역을 마한의 맹주국인 목지국이 위치한 지역으로 비정하는 견해가 설득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산시에서도 능동적으로 마한(원삼국) 유적과 유물에 대한 활용 정책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순발 선생님의 발제문에서 제안된 목지국박물관 건립은 이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연동하여 아산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정책 부분을 몇 가지 언급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까지 구제발굴로 확인된 마한 유적과 유물에 대한 자료가 명암리 박지프레 유적, 갈매리 유적, 배방 월천지구 유적 등 매우 다양하게 확인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자료 모두는 구제발굴이라는 명목하에 조사되어 대부분 보존되지 못한 채 기록보존으로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유적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대상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향후 아산시에서는 조사된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학술발굴 형태로 양호한 마한 유적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를 통하여 향후 박물관 건립 시 유적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박물관 부지로서도 활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와 아울러 마한 유적의 밀집도가 높은 곡교천 유역에 대한 종합조사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서 실시되었던 한강, 임진강, 안성천 유역에 대한 종합조사가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통하여 다양한 전시 콘텐츠뿐만 아니라 아산의 역사와 문화를 조명하고 개발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둘째, 지금까지 조사된 고고자료에 대하여 집성된 자료집이 없는 상태입니다. 향후 마한 유적과 유물의 활용에 있어 기초자료 확보는 매우 중요한 선결작업입니다. 그러

므로 아산시에서는 아산지역의 마한.백제 유적과 유물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자료집 발간 등에 대한 사업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특히나 발굴된 자료 대부분이 한 기관에서 조사된 것이 아니고 다양한 기관에서 조사됨으로 인해서 자료에 대한 정보가 분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를 한 곳에 모은 아카이브 기능을 할 수 있는 정보 매체가 필요합니다.

셋째, 현재 아산지역은 직영하는 공립박물관이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박물관의 건립은 아산지역의 역사와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도 긴급히 필요한 사업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일방적인 관주도 방식을 탈피하여 민간이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된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것은 박물관 건립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및 여론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아산지역 시민들을 대상으로 마한아카데미 운영, 마한 유적 탐사, 마한연구 동아리 모임 개설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한 교육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런 후 박물관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캠페인을 시행하여 지역의 박물관 건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확산시켜 추진동력을 확보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넷째, 박물관 건립과 관련하여 100억 이상의 건립비가 예상되므로 아산시 자체 재원만으로는 추진하기는 현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국도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데, 담당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시행하는 박물관 사전평가제에 대한 대응 준비가 필요합니다. 마한 전문박물관의 필요성 및 운영계획 등에 대한 로드맵을 설정하여 박물관 사전평가제에서 승인을 받게 되면 전체 사업비 40%의 국비지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전 준비작업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아산지역에서 마한 혹은 목지국 박물관 건립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관련 연구성과를 많이 도출해 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아산시에서는 학계의 연구기반 조성 및 연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련하여 연구위원회를 조직하고, 정기적인 학술대회 개최, 연구 총서 발간 등 박물관 건립과 관련한 연구자들의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는 작업도 별도로 시행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산지역의 학생층을 대상으로 한 마한 역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학생층들의 교육이야말로 지역의 역사와 문화 자원을 전승.계승.보존시

킬 수 있는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는 문화재와 연동하여 문화재 생생프로그램과 문화유산 교육프로그램 등의 지원과 지역의 사회단체 등의 발굴과 연계를 통하여 단기적·일시적인 형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써 구축하여 운영되어야 합니다. 방과후 학교, 직업체험교육, 자유학기제 등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박물관 설립에 관한 제언 (천안흥타령관 사례 중심으로)

정 재 학 학예팀장
(천안박물관)

☐ 사업개요

- 관 명 : 천안흥타령관
- 위 치 :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412 (천안삼거리공원 內)
- 사 업 량 : 부지 4,439㎡, 연면적 3,716.89㎡ (지하1층, 지상3층)
- 사업기간 : 2009. 3 ~ 2013. 12 (5년)
- 사 업 비 : 7,400백만원(국비 28억, 도비 4억, 시비 42억)
- 사업내용 : 전통주 전시 및 체험장, 춤주제관, 술전시 판매장 등

☐ 추진상황

- 2010. 4. :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충청남도)
 - 2011. 4. : 건축설계 완료
 - 2013. 9. : 공사 준공
 - 2013. 6. ~ 9. : 웰빙엑스포 사무실 사용
 - 2013. 4. ~ 9. : 전시 용역 설계 협의 (유물 등)
 - 2013. 10.~12. : 전시물 제작.설치 완료
 - 2014. 1. ~ 2. : 개관 준비 (직원 배치)
 - 2014. 4. 3 : 개관
- ※ 기획부서 : 문화관광과 (문화재팀 → 전통주박물관TF팀)
사업부서 : 건설사업부 (시설과)
운영부서 : 천안박물관 (흥타령관팀)

□ 세부추진내용

○ 위치도 : 동남구 천안대로 412 (삼룡동)



○ 조감도 : 지하1층, 지상3층



○ 층별구성(안)

구 분		주요구성	면적(m ²)	비고
총 계			3,716.89	
지하층	지하1	소 계	372.43	
		수장고, 기계실	124.15	
		전기실, 발전기실	68.97	
		창고, 기타	179.31	
지상층	지상1	소 계	668.23	
		춤 전시관	127.68	개관특별전
		전통주판매점, 사무실, 기타	540.55	
	지상2	소 계	594.34	
		전통주관	90.78	
		명주관	68.53	
		주기명품관	113.47	
		휴게실 및 기타	321.56	
	지상3	소 계	589.81	
		전통주 체험관	87.53	
		춤 공연장	162.82	
		창고 및 기타	339.46	

□ 유물수집 및 관리

○ 유물구입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내역	구입내역		비고
		수량	구입비	
계	230,000	224점	166,980	
2013년	30,000	125점	27,880	문화관광과
2014년	200,000	99점	139,100	천안박물관

○ 향후 유물수집 방향

- 전통주 관련 청자 등 명품유물 구입
- 전통춤 관련 유물 구입
- 지역 전통주 관련 유물 수집
- 기증, 기탁 유도

□ 전시운영

○ 전시개요

구분	전시제목	전시내용
제 1 전시실		   
	개관특별기획전으로 “춤의 꿈, 그리고 10년”을 주제로 전시하고 있다. 제1부는 ‘홍타령 춤 축제를 시작하다’로 홍타령 춤 축제의 역사와 성과 등을 보여주는 문서와 자료 등을, 제2부는 ‘세계와 흥을 나누다’로 각국 무용단이 기증한 기념품 등을, 제3부는 ‘흥에 겨워 나 빌레라’로 각국 무용단의 의상과 소품 등을 전시하여 홍타령 춤 축제 10년을 회고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전시를 마련했다.	
구분	전시제목	전시내용
제 2 전시실		     
	전통주관으로 누룩고리, 시루, 소줏고리 등 전통주 관련 유물 및 자료 등을 전시하여 전통주의 역사와 제조과정, 전통주의 분류 등을 알아 볼 수 있도록 전시했다.	

제 3 전 시 실		
명주관으로 서울 문배주, 충남 두견주, 경주교동법주 등 전국의 전통명주와 천안을 대표하는 막걸리, 연미주, 포도주 등을 전시하여 전통주의 향기와 특징 등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전시했다.		
제 4 전 시 실		
주기명품관에서는 원삼국시대부터 근현대까지 시대를 초월하여 술병, 잔, 접시 등 술 도구 명품 등을 전시하여 전통주의 의미를 재고해 볼 수 있도록 전시하고 있다.		

○ 전시내용

구분	평면도	전시구성
제1전시실 (춤주제관)		1-1 흥타령 춤축제를 시작하다. 1-1-1 흥타령 춤축제의 역사 1-1-2 흥타령 춤축제를 만든 사람들 1-1-3 흥타령 춤축제의 성과 1-2 세계와 흥을 나누다. 1-2-1 국제민속춤 무용단 참가현황 1-2-2 민속악기 1-2-4 대륙별 기념품 1-3 흥에 겨워 나빌레라. 1-3-1 우리나라 무용단 의상 1-3-2 아시아 민속의상
제2전시실 (전통주관)		2-1 천안삼거리와 전통주(영상) 2-2 천안삼거리 주막(디오라마) 2-3 전통주의 정의와 특징 2-4 전통주의 태동과 발전 2-5 전통주의 전성기 2-6 전통주의 쇠퇴 2-7 전통주 제조과정과 제작도구 2-8 전통주의 분류 2-9 계절에 맞는 전통주
제3전시실 (명주관)		3-1 전통주의 분포 3-2 가양주와 천안의 명주(영상) 3-3 전통주 향기체험 3-5 전라도의 전통주 경상도의 전통주 3-6 충청도의 전통주 서울·경기도의 전통주 3-7 천안 양조의 역사 3-8 천안의 전통주 3-9 술에 관한 금언
제4전시실 (주기명품관)		4-1 천안의 주기명품(영상) 4-2 제례의기 4-3 술병 4-4 술잔 4-6 소주향아리 4-7 접시 4-8 소주병 4-9 소주잔

○ 전시유물

구 분	총계		유 물				근·현대자료				
			구입	이관	기탁	대여	구입	이관	기증	기탁	대여
합계	술	429	78	24	6	2	222	10	58	15	14
872점	춤	444	-	-	-	-	-	431	-	-	13
제1전시실	444		-	-	-	-	-	431	-	-	3(문광) 10(무용)
제2전시실	64		9	5	6	-	20	8	1	15	-
제3전시실	173		-	-	-	-	118	1	54	-	-
제4전시실	192		69	19	-	2	84	1	3	-	14

○ 향후 전시계획

- 기획전 : 한영숙 추모 제25주기 특별기획전
 1. 전시제목 : (가제) 천상의 춤꾼, 한영숙
 2. 전시기간 : 2014. 9.30 ~ 2014. 12.31
 - ※ 개막식 : 2014. 9.30 오후 3시(예정)
 3. 전시장소 : 흥타령관 1층 기획전시실
 4. 전시예산 : 60,000천원 (전시패널, 전시시설, 도록 등) ※ 추경예산 확보
 5. 전시유물 : 한영숙 선생 의상, 유품 등 60여점
 6. 전시방법 : 숙명여대 무용과 정재만 교수 (한영숙 선생 제자)
 - 자료 등 대여 전시
 7. 전시내용 : 천안출생, 벽사 한영숙 선생의 무용 재조명 및 업적 회고
 - ※ 한영숙 (1920~1989) : 천안태생, 호 벽사(碧史)
 -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기에능보유자, 제40호 학춤기에능보유자
- 상설전 : 유물교체 (3~4개월), 관람객 친화적 전시 지향

□ 교육홍보

○ 박물관 교실 (주중)

- 기 간 : 8월 ~ 12월 (총 12회)
- 장 소 : 강의실 혹은 공연장
- 방 법 : 강사 섭외
- 소요예산 : 강사수당 (6,000천원)
- 내 용 : 전통주 및 전통춤 관련 강좌
- 강좌내역(예시)

연번	과목명	강 사	비고
총계	6강좌		
1	전통가양주(기초반)	한국전통주연구소	
2	전통가양주(연구반)	한국전통주연구소	
3	차문화 강의	원유관	
4	탈춤 배우기		
5	풍물 배우기		
6	도자기 만들기	천안시공예가협회	

○ 흥타령콘서트 (주말)

- 기 간 : 7월 ~ 12월 (총6회)
- 장 소 : 공연장
- 방 법 : 강연, 체험, 기타 등 복합 프로그램
- 소요예산 : 6,000천원
- 내 용 : 전통주, 전통차, 도자기, 전통춤 관련 지식토크콘서트

○ 체험프로그램 (주말)

- 시음행사
- 엔젤마켓
- 토요상설무대 (천안시립예술단)

○ 찾아가는 박물관학교 : 격지지역 학교 우선

□ 기 타

○ 시설보완

- 강의실, 숙성실 : 술 제조 관련 집기구입 및 숙성실 외기 차단 시설 보완
- 공연장 : 빔프로젝트 설치 등
- 전시실 입출입구 : 셔터 설치 (보안 등)
- 안내데스크

○ 인력보완 : 학예연구원 (기간제 근로자) 1명

□ 발전적 제언

○ 기획 단계부터 전문적 전담인력 필요

- 건립 논의 관련 : 다양한 자문위원 필요 (전문가, 관련공무원, 자문위원 등)
- 건물 건립 관련 자문위원과 전시 관련 자문위원 별개
- 전시 관련 자문위원의 경우 관련 전문가와 더불어 전시 전문가 필요
- 이를 조율하고 운영 관리하는 전담 학예연구직 필요
cf) 통상 학예연구직의 경우 개관 전후 임박해서 채용

○ 전시유물 확보가 중요

- 현재 사전평가제 체제에서는 절대적임
- 전시유물 여부에 따라 전시설계가 결정됨

○ 박물관 환경변화와 정책방향 설정 중요

- 현재는 유물관리, 전시보다 교육, 체험 등 더욱 중요시됨
- 유물관리, 전시, 교육 관련 공간의 적절한 배분이 필요

○ 박물관 향후 운영방향 설정 중요

- 보통 건립만 하고 사후 관리운영에 소홀한 경우가 대부분
- 사후 운영방향 설정과 인력, 예산확보 중요

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a handwriting practice worksheet. It consists of multiple sets of three horizontal dashed lines, providing a guide for letter height and placement.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cross the entire page, leaving ample room for writing practice. There is no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ge.

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white paper designed for handwriting practice. It features 20 evenly spaced, horizontal dashed gray lines that run across the entir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present.

[illegible]

[illegible]

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a handwriting practice worksheet. It consists of multiple rows of horizontal dashed lines spaced evenly apart, providing a guide for letter height and placement. The background is plain white, and there are no other markings or text on the page.

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dashed lines, typical of primary-ruled notebook paper.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